

재식밀도 및 품종의 차이에 따른 메밀의 성장해석

허 권, 박병재*, 배원호, 최수용, 이기철¹⁾, 장광진²⁾, 박철호
강원대학교 식물응용과학부, ¹⁾춘천교육대학교, ²⁾한국농업전문학교

산간지에서 메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적정 품종별 재식밀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홍천군 서면에서 3개 품종(수원 1호, 2호, 12호)을 공시하여 3개 수준의 재식밀도(40 × 10cm, 50 × 20cm, 60 × 30cm)로서 6월 초순에 파종하였다. 성장해석을 위하여 1차 수확은 파종 후 4주째에, 2차 수확은 파종 후 6주째에 각 처리별로 10주씩 수확하여 엽면적과 건물중을 재어 작물생장율(CGR), 상대생장율(RGR), 순동화율(NAR), 엽면적율(LAR), 특수엽면적(SLA), 엽면적 지수(LAI), 엽면적 기간(LAD), 건물기간(BMD) 등 8개항목에 대한 성장해석을 실시하였다.

품종을 종합해 보면 소식인 표준구(60 × 30cm)가 밀식구(40 × 10cm)보다 다소 높은 RGR과 NAR을 나타냈으며 품종별로는 수원1호가 다른 품종보다 성장율과 순동화율이 높았고 특히 표준구보다 밀식구에서 높았다. 엽면적 지수도 수원1호가 다른 품종에 비하여 재식밀도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다. 수원2호도 표준구에서 가장 높은 성장율과 순동화율을 나타냈으나 다른 품종에 비하여 가장 저조한 성장을 보였다. 4배체인 수원 12호도 표준구에서 CGR, RGR, NAR이 가장 높았으며 수원1호와 수원2호 생육의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